

#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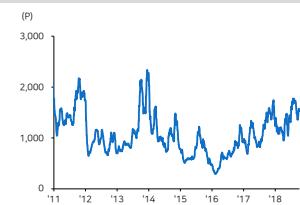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233.6	16.6	133,500	-5.0	6.8	31.5	39.1	93.0	44.6	0.7	0.6	0.7	1.4
현대중공업하이	6,416.9	20.6	394,000	-4.6	6.5	15.9	3.4	5.3	4.4	0.7	0.6	14.1	14.7
현대엘렉트릭	722.6	4.8	70,800	-2.2	12.0	15.5	-37.9	6.7	5.8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313.5	7.9	133,000	-2.2	14.2	9.5	-21.3	8.4	6.2	0.9	0.8	11.7	13.9
삼성중공업	4,750.2	18.1	7,540	-6.9	0.0	10.7	16.6	47.6	23.6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704.0	9.6	34,550	-6.4	15.4	33.1	148.6	8.6	18.3	1.0	1.0	12.4	5.3
현대미포조선	2,010.0	10.1	100,500	-3.8	4.9	16.3	27.7	21.7	15.7	0.8	0.7	3.6	4.8
한진중공업	244.5	6.7	2,305	-6.7	-14.2	-22.3	-30.4	46.4	11.6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408.4	22.6	125,500	1.6	12.6	66.4	130.7	22.2	21.6	3.0	2.7	14.6	13.3
두산밥캣	3,994.9	26.5	39,850	-0.4	10.2	29.2	12.8	14.6	13.8	1.1	1.1	7.4	7.6
현대로템	2,703.0	2.5	31,800	0.6	2.3	32.5	69.6	41.0	28.0	1.8	1.7	4.5	6.3
하이록코리아	336.2	48.9	24,700	4.2	11.3	-2.2	9.8	11.2	10.2	1.0	0.9	8.8	9.0
성광밴드	360.4	16.1	12,600	-2.7	12.5	5.4	26.3	1,113.8	45.2	0.8	0.8	0.1	1.8
태광	373.7	13.0	14,100	-4.7	14.6	17.5	17.0	84.2	41.1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675.2	14.8	14,300	-1.4	-5.3	-3.4	-6.8	23.6	8.6	0.5	0.5	2.6	5.2
두산인프라코어	2,075.3	20.9	9,970	-0.8	6.7	8.1	14.7	6.6	6.1	1.1	0.9	17.6	16.1
HSD엔진	143.6	4.3	4,360	-4.4	8.1	7.7	69.7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265.4	9.9	33,500	0.4	-25.3	-22.1	-29.4	30.1	22.8	2.8	2.5	9.4	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506.6	11.8	28,950	0.0	7.2	25.3	-18.6	41.1	20.4	0.7	0.7	2.0	3.4
LIG넥스원	812.9	8.2	36,950	-2.9	6.8	-2.9	-38.2	39.5	18.9	1.3	1.3	3.4	6.8
태웅	270.1	4.7	13,500	-1.1	-7.8	-10.9	-30.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8.6	6.1	8,470	0.4	15.1	40.7	67.7	-43.4	22.7	2.9	2.7	-6.4	12.4
한국카본	308.6	14.2	7,020	-2.0	9.0	14.9	31.0	81.5	21.6	1.0	0.9	1.2	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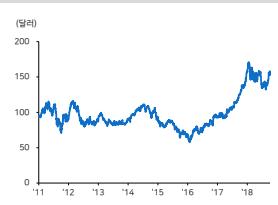
##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27 150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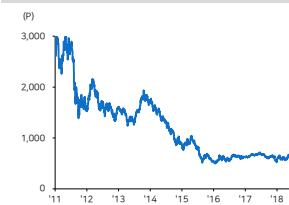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 -3.89 149.46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Enscos and Rowan agree \$12bn merger

시추업체 Enscos는 경쟁사 Rowan 인수안이 두 회사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됨. 합병된 회사는 Enscos 61% + Rowan 39% 주주로 구성될 전망이며, 주가적인 자금조달이 없다고 알려짐. 합병된 회사 규모는 약 120억달러로 예상됨. 합병된 회사의 시추장비 선대 규모는 82기에 달할 예정임. (Upstream)

### BW LPG drops \$1.1bn pursuit of Dorian LPG

BW LPG는 경쟁사 Dorian LPG를 11억달러에 인수하려던 시도를 중단했다고 알려짐. 지난 5월에 Dorian LPG 인수를 위해 첫 제안을 했고, Dorian LPG의 거절에 따라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제안함. 다만 BW LPG 회장은 Dorian LPG 주주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합병이 진행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김. (TradeWinds)

### 대만, 상선 분야는 사실상 손들었다

대만 조선업체 CSBC Corporation은 수익 향상을 위해 조선 사업 부문 비중을 줄일 계획을 밝힘. CSBC는 대만 정부의 풍력 발전 정책에 따라 2025년까지 조선, 풍력, Offshore 부문 사업 매출 비중을 각각 30%로 목표함. 현재 CSBC 매출 90%는 조선에서 발생하나, 시장 침체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함. (선박뉴스)

### 현대오일뱅크 경징계 가닥...연내 상장 청신호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상장 전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다음달 회의를 열고 '경고·주의' 수준의 경징계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자회사 현대쉘베이스오일의 이익 과대계상이 원인이며, 경징계는 상장에 지장을 주지 않아 11월 계약 완료 후 12월 상장이 가능할 전망임. (매일경제)

### Hapag-Lloyd reveals its 2020 fuel recovery hand

컨테이너선사 Hapag-Lloyd는 환경규제에 대응한 저유황유 사용으로 증가는 연료비를 회수하는 공식을 발표함. MFR(Marine Fuel Recovery) 조항을 통해 10억달러 추가 연료비 상승을 회수할 계획임. MFR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Maersk · MSC · CMA CGM이 도입하는 유류활증료와 같은 개념임. (TradeWinds)

### IMO 2020 to speed chemical tanker scrapping

Eastport Research에 따르면 2020년 IMO 환경규제 도입으로 케미칼 탱커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음. 기존 케미칼 탱커 평균 폐선 선령은 26년이지만, 환경규제 도입으로 5~6년 빠른 시기에 폐선될 전망임. 14,000~22,999DWT급 케미칼 탱커 선복량은 2020년에 약 10% 감소할 전망임.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